

연중 제18주일

기도서 404면 (C해)

제1독서: 전 도 1, 2, 21-23

제2독서: 골 로 3, 1-5, 9-11

복 음: 루 가 12, 13-21

#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흥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충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나누지 않은 재물은 생명을 단축 시킨다

정양현 신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재산 분배에 관한 일을 도와 달라고 청한다. 이 청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장래의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즉 자신의 참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 준다.

어리석은 부자는 현세의 재물이 마치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처신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뫼은 재산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결국 그 재산이 그를 죽음의 파멸로 이끌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잘 적용되고 있다. 오늘날은 재산뿐 아니라 명예, 권력, 유흥, 텔레비전 등의 힘과 능력이 사람들의 생명을 자꾸만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도 하느님의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물론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여 재물스런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사랑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다. 사랑의 열매는 나눌 속에서 영글어 간다. 오늘날 교회가 가난의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교회가 십일조를 강조하면서 아무리 황금만능 사상을 배격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실제로는 물질적인 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생을 보장받고 싶으면 자기에게 잠시 맡겨졌던 재물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나누야 한다. 비록 그 행위가 방송이나 주보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누지 않은 우리를 보고 하느님은 "이 미련한 자가 바로 오늘밤 네 영혼이 네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고 비유가 아닌 진짜로 말씀하실 것이다.

(덕진 보좌신부)



## 이열 치열 (以熱治熱)

너무나 덥다. 여름에 더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당연한 자연법칙을 잊고 곧잘 짜증을 낸다. 하기가 금년 여름은 기상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스럽게 말세론을 말하기도 한다. 폭우, 폭염, 거기다가 영하 80도가 넘는 남극의 추위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잦은 핵실험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교구는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회를 열고, 우리의 주장들을 현수막으로 알리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런지도 모른다. 한 편에서는 한 세대가 넘게 갈라졌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기쁨에 국민들 모두가 짜릿한 흥분과 감회에 젖어 있는데, 이게 무슨 것이냐고 말이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은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자기의 소속 정당 수련회장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무어라고 항변을 하던, 품위가 없어 보이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아무리 정당정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온 국민의 대표자 모습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정당의 파견원(연락병?) 이전에 국민의 대표의 모습을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말하는 주장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이다. 아무리 더워도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당한 작은 그리스도의 외침에 어떻게 귀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침묵할 망정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비록 이 일이 덥게 느껴질지라도, 더위에서 도망가지 말고 이 열치열로 더위를 이기자.

## 순정이 산책



인산 인해였다

대한유심협회  
대한유심협회로 이름이 바뀌어 주심협회

1. 여러분은 금번 J.O.C 회원들의 단식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단식투쟁은 노동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당연한 종교활동이 저지당 하고, 최저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순행위로 낙인을 받으면서, 거듭거듭 부당 해고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2. 저는 이들의 호소에서

①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호소할 길조차 봉쇄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 농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②사회안정이라는 구실 아래 진리와 양심의 올바른 기준을 따라 행동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탄압과 감시를 받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 지성인, 언론인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③자유스런 학문 연구와 면학의 분위기는 이미 상실하고, 그나마 익히고 배워온 진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율배반적 사회를 슬퍼하고 있는 학생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겨레의 호소에서 공통된 점은, 첫째,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고귀한 인간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또한 이것이 보장되는 의롭고 평화스런 사회를 요청하는 양심의 소리, 진리의 외침입니다.

둘째, 양심과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되고 고통을 받는 데도 아무도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깊은 외로움의 탄식소리입니다.

3. 우리가 들은 복음에 의하면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창세1,26) 인간을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시편 8,5-6). 참으로 시편의 작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시편8,4) 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성을 취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해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비록 고통받는 가련한 인생일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 하면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더욱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요한10,10) 이토록 인간은 소중하고 따라서 하느님의 모든 노력 또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목표가 여기있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를 성취하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목

표이며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인간성이며, 우리가 지켜야 될 제명은 바로 이들을 사람으로서 대접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4. 혹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에 대한 노력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라 오해하고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목76)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교회와 인권)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욱 주교님들께서는 “용기있게 불의를 공공연히 규탄할 것을 요구하면서”(바오로6세 72.1.10) 신자들에게는 “부정과 탄압, 일개인이나 한 정당의 독재와 불관용에 항거하여 청렴결백과 지혜를 다하여 투쟁하며, 성

실과 공명, 사랑과 정치적 용감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기 바란다”(사목75)고 교회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세적 야심 속에 정치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정신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할 뿐입니다. 흔히 국가안보,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안보를 위해 인권의 유보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안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적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5. 이제 저는 이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 받고 있는 사람들과 정신적으로나마 가까이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십자가상 죽음의 막바지에서 괴로움에 탄식하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마르16,6) 하는 천사의 소리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인간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비로소 저 십자가의 희생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구속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클수록 이 땅의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하는 확실하고 분

(3면 하단에 계속)

부당 해고자를 위한 기도회 강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16,33)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기능직 여사원 모집 안내**  
당사는 피혁제품 수출업체로써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 여자 ○○명   모집기간: 수시 접수  
자    격: 14세~20세 미만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자필이력서  
**전 주 산 업 사**  
☎ (72) 1810    정 루시아

### J·O·C(지·오·씨)란?

J·O·C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는 불란서 말의 약자이며 1925년 벨지움의 까르닌 신부님에 의해 창설되어 전세계에 보급된 특수 가톨릭 운동이다.

노동자들과 그들의 환경 전체를 복음화 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혼탁한 물에 있는 물고기를 맑은 물로 옮기기 보다는 혼탁한 물 자체를 정화시킴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라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 노동자들은 노동사회 안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동현실을 함께 조사하고, 이를 복음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그릇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58년 이 운동이 한국에 들어온 이래 현재 각 교구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의 공인을 받은 단체로서 주교단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제 J·O·C의 특수한 목표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J·O·C는 노동자 운동이다.** J·O·C는 청년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그들 스스로가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사회를 복음화 하는 운동이다. 그리하여 노동자 개개인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노동의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둘째, J·O·C는 선교운동이다.** J·O·C는 노동사회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고통하는 노동자 세계에 임하도록 하는 선교운동이다. 노동자 각 개인에게 교리를 가르쳐 영세 받도록 함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 환경 전체를 그리스도화 시키려는 복음화 운동이다.

**셋째, J·O·C는 양성운동이다.** J·O·C의 교재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생활 자체가 학교이다.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으로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또한 회원 각자의 숨은 재능과 개성을 개발한다.

**넷째, J·O·C는 대중운동이다.** J·O·C는 선전된 몇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정신과 일상생활을 혁신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이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이 정신과 사랑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운동이다.

**다섯째, J·O·C는 대표운동이다.** J·O·C는 힘 없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개인적인 대표운동과 전체 청년 노동자들을 이끌고 대변하기 위한 공식 대표들의 운동이다. 그리하여 가까이 있는 직장이나 공장의 책임자에게 대변하고, 멀리 있는 정부기관, 여론, 국제기구들 및 교회에 청년 노동자들의 인격적 구제와 생활 향상을 위해 대표 활동을 하는 운동이다.

**여섯째, J·O·C는 봉사운동이다.** J·O·C는 청년 노동자들의 발전과 인격적 구제를 위해서 노동자들에 봉사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 봉사운동의 성격은 일시적인 봉사라기 보다 노동자들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봉사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돕는 운동이다.

**일곱째, J·O·C는 국제적 운동이다.** J·O·C는 인종, 문화, 국적, 종교의 차별없이 전세계의 모든 청년 노동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운동이다. 즉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유대도 상호 협조하는 운동이다.

(2면에 계속) 명한 표지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6.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①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 빛을” 주자는 교회의 뜻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호소합니다.

②우리의 노력이 참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간청하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16, 33)고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유장훈 신부—

### 요심이(521) 김병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썬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순

월명동 성당 버스 성지순례단 위해 특별봉사

기간: 방학기간중 매일 평상시 토·일

☎ ② 8445 · ②2041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씹크대수리
- 가스렌지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유주)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고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베드로·김안나

【SS】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앤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30% 세일**

세계적인코트의명문 7월 22일~31일까지

**챌 린 저** 전주시 중앙동 3가 심화약국 옆 ④4451

주 니 어 북 유 울리안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제3기 센터 예비자 교리반 개강식 : 5일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2. 농민회 농촌 부녀자 초청 교육 : 2일~4일, 장소-가톨릭 센터
  3. M.B.W 목상회 : 7일 오후 3시30분~10일(3박 4일), 접수수 40명, 참가비-2만원
  4. 군중후원회 미사 : 1일 오후 8시, 주례-고 경훈 신부님, ☆임시총회 8월말 예정
  5. 제15차 여성 꾸르실료 : 18일~21일(3박 4일), 희망하시는 분 본당신부님과 상의 바람, 장소-가톨릭센터
  6. 7지구 교리교사 체육대회 : 7일 오전 10시, 장소-화산성당
  7. 7지구 중·고생 수련회 : 2일~4일, 장소-고산
  8.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제2차 회의 : 8월 7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창인동 성당
- ☆ 방송안내 : 「성가를 들으며」-매일 저녁10시10분~30분(주일제외), 기독교 이리 방송국(1310Khz)

(중앙)

전화 ⑥1711~3

수입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김 인 협

1. 안 철문(이나시오) 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영육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사도회 상임위원회 : 8월 7일 공식미사 후
  3. 8월 반장 모임 : 8월 4일 오후 8시
  4. 성심부녀회 : 8월 5일 어머니미사 후
  5. 영세사진 집행실에
  6. 독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 398,318단 봉헌
  7. 성전 신축헌금 신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채홍 30만원(추가 15만원), 김장훈 30만원(추가 15만원), 최공업 30만원(추가 20만원), 문영희 20만원(추가 10만원), 주정순 10만원, 전경옥 5만원, 박금주 3만원, 이기주 2만원, 최복순 2만원  
신입누계 : 202,302,600원, 납입누계 : 68,361,500원
- 지난주 봉헌금 : 901,906원 교무금 : 789,5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입 신부 김 울 태  
수·사 ⑦032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훈 재

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 운영에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
  2. 성시간 : 11일 저녁 8시, 많은 참여 바람
  3. 예비자를 인도합시다 : 입교식 7일, 공식미사 중에
  4. 본당 울뜨레야 : 오늘 저녁 8시, 본당내 꾸르실리스트
  5. 고해성사 주는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까지 매주 각 미사후
  6. 아파트 소식 : ①요셉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첫영성체 교리 : 8월 1일~13일까지  
매일 오전 9시~10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 494,475원, 아파트 : 62,810원  
교무금 : 378,000원, 아파트 : 174,000원

(덕진)

신부(3)2182 수입 신부 김 봉 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8월 6일 저녁 8시
  2. 구역장 반장 모임 : 8월 7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 다음주일(8월 7일) 오후 4시
  4. 청년회 단합 수련대회 : 8월 2일~5일, 지리산  
참가신청자 공식미사 후 모임
  5. 어머니 성가대 재편성, 연습 : 8월 5일~13일
  6. 성심부녀회 월례회 : 8월 3일 오전 10시  
까리따스 자도회 월례회 : 8월 2일 오후 2시
  7. 예비신자 교리반(성탄영세 예정) 안내  
수요일 저녁 8시-젊은이, 목요일 저녁 8시-직장인  
로 감사드립니다
  9. 주일학교 방학 : 8월 1일부터 교리 없음, 미사 3시
- 지난주 봉헌금 : 425,535원 교무금 : 456,00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수입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철례 6 : 8월 5일 저녁 8시  
첫철례 7 : 8월 6일 저녁 8시
3.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 8월 1일~6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4. 수녀원 신축헌금 해주시 분께 감사  
김화영·압기백·김경주(각 20만원), 나학순(15만원), 박홍기·유기순·한순녀(각 10만원), 이충원·정병선(각 5만원), 누계-2,650,000원  
※ 8월 7일까지 본당신부님께 신청하여 주시길 바람
5. 중고생 하기로리 : 8월 1일~6일 오후 4시~5시

6. 금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유기순 ②임종을  
제주전례 : 해설-은희영, 독서-①이충원 ②김화영  
지난주 봉헌금 : 470,520원  
200주년 특별헌금 : 70,904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수입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철 수

1. 사도회 월례회 : 8월 3일 오후 8시30분
  2. 자도회 모임 : 8월 2일 오전 10시, 본당 회의실
  3. 중·고등학생 수련회 및 주일학교 어린이 특별교리  
에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유아세례 : 매일 첫주일 공식미사 전(9시30분)
  5.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및 영세자 모임  
첫영성체-국민학교 3학년 이상, 영자-5·6학년
  6. 차주전례 : 독서-①박경환 ②박형식  
신자들의 기도-신영창·김조자·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280,410원 교무금 : 155,000원

(윤정이)

전화 ⑥7366 수입 신부 김 종 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요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누깁다 회 : 금주 토요일(10시)
  4. 첫 영성체 교리 : 매주 화·수·목·금·토(9시)  
※ 오늘 200주년 특별헌금 있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중·고생 수련회·여름 성경  
학교에 협조해 주신 사도회·요한회·부녀회 그리고  
많은 교우님들께 뵈히 감사드립니다
  5. 금주전례 : 해설-김경주, 독서-①홍성조 ②김영철  
기도-노재두·유희자
  6.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①정주복 ②이원길  
기도-김남곤·장삼
- 지난주 봉헌금 : 161,610원 교무금 : 346,900원

(전동)

신부 ⑥6208 수입 신부 김 병 열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 찬 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 중 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 다음주 학생 미사후
  4. 성가정 회 : 8월 2일 12시
  5. 클로리아 성가대원 모집  
연습시간-8월 1일부터, 오후 8시(사제관)  
6. 성탄반 예비자 모집안내 : 7월중  
수-오후 8시(박찬길 신부)  
목-오후 8시(박찬길 신부)  
금-오전 10시30분(김세시리아 수녀)  
금-오후 8시(김세시리아 수녀)  
토-(중·고생) 오후 3시30분(유요아킴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 지난주 봉헌금 : 685,370원 교무금 : 383,000원

(파티마)

신부 ③0915 수입 신부 김 영 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 희 상

1. 어린이 유아세례 : 오후 3시30분 미사후
  2. 어린이 여름 교리학교 : 8월 1일부터 6일까지  
학부모님들의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3. 성모 기사회 : 8월 6일 2시에 있음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에 있음
  5. 예비자 교리반 : 9월 영세 예정, 열심히 출석 바람
  6. 세례 대상자 : 레지오 단원들은 잘 돌보아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87,140원 교무금 : 425,000원